

# 지방간 복합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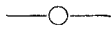
## (Fatty liver Syndrome)

이 현 범

(류리나·코리아 기술부장)

「산란계에 있어서 외관적으로 아주 좋은 닭들이 산란 최성기에 도달하면서 부터 월인불명으로 갑자기 폐사하는 일이 흔히 있는데 사후 부검을 해보면 간이 파열되어 응고된 핏덩이를 볼 수 있다.

소위 말하는 지방간 복합증이란 병이 현재 우리들 주위에서 흔히 발견되고 있는데 아직 양계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음을 볼 수 있다.」



산란계에 있어서 지방간 복합증에 관하여 처음으로 보고된 것은 지금부터 그리 오래되지 않은 1953년의 일이다.

그후 매년 이 증상에 대한 보고가 늘어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 피해가 적지 않으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 병의 발생을 흔히 관찰하게 된다.

이 지방간 복합증에 관한 원인규명은 아직 없으며 그 예방책에 대한 것도 확실히 권장할 만한 사실이 나타나도 없다. 다만 몇가지의 추정에 의한 방법이 추천되고 있으나 확실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지방간증의 발생상태 및 증상—

일반적으로 80%이상의 산란율을 올리고 있는 닭들에서 발생율이 높으며 그 발생이 지역적으로 제한되어 있지도 않고 또한 년중 어느때나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봄철에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한다. 모든 닭의 계통에서 다 같이 발생이 있으나 어떤 특정계통은 더 많은 발생율을 갖는 것 같다. 평사의 닭보다도 케이지의 산란계가 발생율이 높은 경향을 보여 주는데 이는 아마도 케이지에 있는 닭들은 활동상에 제한을 더 받으므로써 이것이 이 병의 요인중에 하나가 되지않는가 추측이 된다.

그러나 지방간 복합증은 계란의 난질에는 영향을 없다.

지방간 복합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해부검사를 해보

면 하나같이 다 간과열 및 그 출혈을 볼 수 있는데 산란인 체로는 외관적으로 아무런 증상을 알아 낼 수 없다. 지방간 복합증으로 죽은 닭들은 항상 계군내에서 제증이 좋은 닭들이나 해부해 보면 살이 잘 썩었고 응고된 핏덩이가 복강이나 간엽의 하단부에 크게 뭉쳐있는데 폐사는 이 출혈때문에 일어난다. 간은 지방침착이 상당히 되어있고 색은 황색으로 비뚤어져져 탄력이 없고 무르고 잘 깨뜨려진다. 난소는 활동이 좋은 상태에 있는데 난 형성이 다 된 계란이 난관내에 들어있기도 하다. 그리고 복강내 지방침착이 많음을 볼 수 있다.

이 병의 증상은 흔히 비브리오성 간장염과도 비슷하므로 반드시 해부검사에 의한 진단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 —지방간 복합증의 원인—

현재까지 확실히 알려진 것은 없지만 몇가지 요소가 추정되고 있다. 즉 전염적인 어떤 병원체 독소물질, 중독 또는 내분비와 효소의 이상작용 스트레스 또는 부적당한 영양등이 단일적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관계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여러가지의 치료책에 대한 방법이 추천되고 있으나 아직 효과적인 방법은 없지만 콜린, 비타민 E 그리고 비타민 B<sub>12</sub>등이 정상이상으로 보강되거나 또는 에너지 수준을 낮은 사료로 바꾸어 사양을 하든가하면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하나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는 듯하다가 다시 마찬가지로 된다고 한다.

최근 보고에 의하면 미량광물질의 하나인 세레니움 결핍이 이 병의 한 원인이 되지 않는가 하는 보고도 있다.

현재까지 분명한 것은 원인,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아무런 증명은 없으며 다른 전염병과 같이 높은 발생율은 아니므로 이 증상이 관찰될 때 쓸데없이 항생제 등의 남용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